

지역경기 살아난다

봄을 맞아 얼어붙었던 광주·전남 지역의 경기가 훈풍을 타고 있어 향후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9일 호남지방통계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은 전년 같은 달 대비 0.8%, 전달 대비 0.2% 각각 증가했다. 자동차, 기계장비, 금속 가공 등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올 뉴 쏘울’ 등이 판매호조를 보 이면서 올해 1월 들어서만 4만4410대를 생산해 1월 중 생산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남은 광공업생산이 전년 같은 달 대비 4.8% 줄어 드는 등 아직은 부진한 상태지만 전달대비 4.4% 늘어 보 함세를 유지했다.

지지부진하던 소비도 점차 살아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1월 중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지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음식료품과 화장품,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의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아웃도어 판매 행사장에는 2000여명의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모처럼 판매 활기를 찾아 소비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의 경우 판매

자동차·조선 등

대기업 중심 생산 증가

부동산 회복·소비 꿈틀

기업들 설비투자도 늘어

액지수가 대폭 늘어 전년 같은 달 대비 21.5%, 전달대비 7.6% 각각 증가했다.

자동차 판매도 증가,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도 매달 6500여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의 외제차 등록대수는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 및 분양시장이 확대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지난 1월 주택시장 동향 발표 중 매수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매수우위지수’에서 광주는 총복(120.3)에 이어 93.2로 전국 2위였다. 광주광역시에는 올 1분기에만 9개 단지 4600여가구가 분양될 정도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의지를 반영한 취득세 영구인하 등의 효과에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투자가 몰리면서 잠잠했던 매매가 살아나고 있다. 나주의 경우 전년보다 무려 19.79%나 표준지가가 상승해

전국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별 편차가 크고 산업부문별 차이가 있어 아직도 경기 부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광주와 전남 서부권은 활기를 띠고 있는 반면 철강, 석유화학 중심의 전남 동부권은 경기가 기저개를 뚫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주요 기업들이 올해 설비투자를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석유화학, 1차금속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 중동업체 등과의 경쟁 심화로 기존 생산제품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군에 대한 설비투자를 강화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본 소와셀 등과 공동으로 여수에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파라자일렌(PX·폴리에스터 등 합성섬유 기초 원료) 설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병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은 “생산과 부동산 등 실물경기 지표들이 일제히 개선돼 지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도 “여전히 침체한 소비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경기 회복의 속도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개장

새 야구장 ‘광주-기아(KIA) 챔피언스 필드’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시민 1만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열고,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7646㎡, 관람석 2만2262석 규모의 새 야구장을 공개했다. 새 야구장에서는 오는 15일 KIA와 두산의 첫 시범경기가 열리며, 4월 1일에는 공식경기로 KIA-NC 전이 열릴 예정이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의료계 집단휴진...광주 참여율 10% 넘지않을 듯

시·도, 대응책 마련 비상

정총리 “고발 등 강력 대응”

광주시와 전남도가 10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시는 다만 집단휴진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소 연장운영 외엔 별다른 대책 없이 향후 사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광주시는 9일 오후 자체 파악한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하겠다는 광주지역 의료기관은 854개 의원급 병원 중 40개소, 무응답(미결정) 40개소 등 최대 80개소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종합병원(100병상 이상·22개소)과 병원(30병상 이상·65개소)은 이번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체의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도 조선대 병원 전공의들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단순 진료 파트로만 국한돼 수술 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광주시의 예상과 달리 병·의원이 집단파업으로 급선회할 경우 시민 건강과 직결된 진료차질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민원의 사태에 대비해 타 자치단체보다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임형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휴진참여)의료기관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고, 힘들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0일 일부 동네의원이 집단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 불편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물론 3개 지방의료원의 진료시간도

연장했다. 또,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도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9일 성명서까지 내려 의료계 집단휴진 자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지사는 “정부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휴진으로 한 사람의 환자에게라도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판단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

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위법 사실을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당 창당작업 본격화 오늘 추진단 전체회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창당 작업이 급류를 타고 있다.

지난 7일 통합 방식에 합의한 양측은 10일 국회에서 신당 추진단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나선다. <관련기사 4면>

양측은 최대 난제였던 통합 방식이 확정된 만큼 이날 안에 법적인 창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당 추진단 산하에 설치되는 새정치비전위원회, 정당정책분과, 당헌당규분과, 정무기획분과 등의 조직 인선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또한, 신당 발기인에 먼저 합류할

민주당 측 ‘선발대’ 구성과 신당의 시·도당 창당 작업 과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총론에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지만 각론에서 서로의 이해 관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신당 추진단은 오는 12일(수요일)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 뒤 ▲15일 부산 ▲16일 광주 ▲17일 대전 ▲18일 경기 ▲19일 서울 순으로 시·도당 창당대회 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3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28일 합당을 통해 사실상 ‘통합 신당’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한편,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대외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통합 신당 ‘버팀목’에 집중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218-증-54017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인증 제378호 (유효기간 : 2014.02.05 ~ 2018.02.04)

척추 전문 광주 새우리병원

새우리병원은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해 보건복지부로 부터 공식 인증받은 의료기관 입니다.
앞으로도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주 화정동 농성역 사거리(농성지하차도 옆) 대표전화 062)603-8000